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 · 임나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 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A 요양원과 B 주간보호 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명(실험집단 9명, 통제집단 9명)이며, K-MMSE~2(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15~23점인 경우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주 2회, 4주간 총 8회의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2 확장형), 기억검사 ECR(Enhanced Cued Recall), 기억전략 사용 척도(Mnemonics Usage Scale)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모수 통계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 분석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집단원들의 반응 및 행동 특성을 미술 작품과 함께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의 기억 및 인지 기능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단계별 반응 및 행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은 인출하는 기억이 증가하고, 주요 인지 기능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완성된 인생그림책은 자신의 생애 기억을 시각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 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매개체는 물론,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관리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그림자서전, 인생그림책, 경증치매, 미술치료, 치매노인 인지기능

* 본 논문은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미술치료전공 석사졸업
***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미술치료전공 부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100세 시대는 분명 축복일 수 있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삶은 개인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준다. 특히 기억이 흐려지고, 정서적 반응이 둔화되는 치매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약 97만명으로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는, 2026년에는 101만명, 2044년에는 20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25). 이러한 증가 추세는 치매가 더 이상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시사한다. 이처럼 치매 인구 증가는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는 동시에, 개인에게는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가는 깊은 고통을 안겨준다. 치매는 단순한 인지적 퇴화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살아온 시간과 존재의 흔적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치매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기억과 정체성이 쇠퇴하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물 역시 증상 완화 또는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정도로만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장기 복용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노인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이정석 등, 2023; Irazoki et al., 2017). 대표적인 비약물적 중재로는 인지 치료와 회상 치료가 있다. 이 두 중재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지 치료는 인지 기능 개선을 목표로 직접적인 학습 방식을 취하는 반면, 회상 치료는 기억 장애가 있는 노인의 자서전적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중재이다(Leyhe et al., 2009; Meeter, Eijsackers & Mulder, 2006). 자서전적 기억이란 시간, 장소, 그리고 당시에 느꼈던 정서적인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기억을 말한다. 또한 자서전적 기억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개인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El Haj et al., 2015). 특히 노년기는 에릭슨의 생애 발달 단계에서 자아 통합을 이루는 시기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 과거를 회상하고 삶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는 활동에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김일규, 정승일, 2020).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임나영)

한편,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장기 일화 기억과 단기 기억의 손상이 나타나며, 기억력이 저하되는 특징이 나타난다(양영순 등, 2012). 이러한 기억력 감퇴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지식, 감각의 손실로 이어지며, 본래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El Haj et al., 2015).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능력이 저하되면, 저장된 기억을 회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기억 유지 기능의 저하로 이어진다(이경민, 2000). 이후, 증세의 악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결국 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치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좌측 측두엽과 우측 두정엽에 병변이 발생하면서 언어 기능, 공간 감각, 판단력, 지난 경험의 기억 상실 등의 심각한 인지적 결함이 나타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전미숙, 2016).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증 치매 환자는 기억력은 감퇴하지만, 여전히 저장된 기억을 회상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역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러한 회상 기반 접근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재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Cammissuli et al., 2022). 특히 시간, 장소, 그리고 당시의 정서적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자서전적 기억은 구체적인 단서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회상되며(박상미 등, 2023; Wheeler, & Gabbert, 2017),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은 단순한 의미 기억을 공유하는 것보다 대인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ike, Brandon, & Cole, 2016). 이러한 특성은 회상치료가 집단 치료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치매 노인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 긍정적인 과거 경험을 회고할 때, 우울 감소와 생활 만족도 향상(진복수, 전미연, 2000)은 물론 인지 기능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강진원, 구민모, 박건우, 2021; 김영숙, 2005; 김찬영, 2022; 정재훈, 2022). 이 중에서도 비교적 인지 기능이 보존된 경증 치매 노인의 경우, 자서전적 기억을 회고하고 이를 글로 기록하는 자서전 쓰기 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치료적 접근으로 간주되고 있다(진영선, 김영경, 2011). 그러나 치매 환자는 인지 및 정신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퇴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언어 중심의 자서전 쓰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Gold et al., 2012). 이에 따라 언어적 표현이 제한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는 비언어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각적·감각적 매체를 활용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술치료는 경증 치매 노인에게 적용 가능한 유의미한 중재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정여주, 2005; 홍희송, 박민자,

2024).

이에 본 연구는 자서전적 기억 회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인생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경증 치매 노인에게 적용하여, 기억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경증치매 노인이 완성한 인생그림책이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가족 등 주변인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임상적 가치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치료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는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둘째, 인생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단계별(초기, 중기, 후기) 반응 및 행동 특성 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A요양원 입소 노인과 B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재가 노인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들 중 사전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2)에서 15점 이상 23점 이하의 경증 치매 단계에 해당하는 노인을 선정하였다(김미성, 이은주, 2023; 도지연, 최명선, 2022; 문준희, 김영숙, 2020). 사전 검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 정신지체 여부, 미술 활동 수행 가능 여부, 의사소통 능력 등을 확인하였으며,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최종 18명을 선정하였다. 이후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9명씩 배치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집단 크기에 따른 평균 효과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연희, 2018). 따라서 연구대상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비해 4~5명씩 두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기본정보는 <표 1>에 제

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기본정보

실험 집단	성별	나이	학력	점수	통제 집단	성별	나이	학력	점수
A1	여	92세	중졸	17 점	B1	여	77세	초졸	21 점
A2	여	81세	고졸	20 점	B2	여	101세	고졸	15 점
A3	남	100세	대졸	19 점	B3	여	86세	고졸	18 점
A4	여	85세	중졸	21 점	B4	여	86세	고졸	15 점
A5	여	82세	초졸	18 점	B5	여	84세	초졸	17 점
A6	여	80세	초중퇴	20 점	B6	여	84세	초졸	19 점
A7	여	92세	초중퇴	16 점	B7	여	82세	초중퇴	18 점
A8	여	87세	고졸	17 점	B8	여	91세	초중퇴	16 점
A9	여	81세	대졸	21 점	B9	남	63세	초중퇴	21 점

2. 연구 도구

1)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2nd Edition, K-MMSE~2) 확장형

초기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MMSE (Folstein, Folstein, & McHugh, 1975)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판 K-MMSE(강연욱, 나덕렬, 한승혜, 1997)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6으로 매우 높고, 검사-재검사 신뢰도($r=0.92$) 또한 높게 나타나, K-MMSE가 일관된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지 기능과 치매 여부를 선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K-MMSE 개정판인 K-MMSE~2 표준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15~21점에 해당하는 경증 치매 수준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인지 기능을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야기 기억과 처리 속도 항목이 추가된 K-MMSE~2 확장형을 함께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인지 기능 선별을 넘어, 기억력과 정보 처리 능력과 같은 복합적 인지 영역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K-MMSE~2 확장형 검사는 교육 수준이 12년 이상인 대상자의 검사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확장형 항목인 이야기 기억은 짧은 이야기의 즉각적인 회상을 측정하는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 처리 속도는 숫자-기호 바꿔쓰기를 통해 지각-운동 속도와 우연학습을 평가할 위한 과제를 수행한다. 이 두 과제에 대한 점수와 확장형 총점은 T점수로 보완한 결과값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K-MMSE~2의 30점 만점 점수에 새로 추가된 두 개의 과제에서 60점까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총점 범위가 0에서 90점으로 확장되었다(강연욱, 장승민, 김상윤, 2020).

2) 기억력 검사(Enhanced Cued Recall, ECR)

본 연구에서 기억력 평가를 위해 개발한 7분 신경인지 선별검사인 7MS (Solomon et al., 1998)를 간접 과제와 16개 그림 자극을 내용을 한국 실정을 고려하여 수정한 7분 선별검사 중 기억력 검사인 ECR을 사용하였다. ECR검사에 대한 기준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311명의 정상군과 105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검사 점수가 1점 증가하면 치매의 가능성은 0.57배 감소하였다(박민선 등, 2002). 이와 같은 결과는 ECR이 교육 수준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치매 노인의 기억력 평가에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한다(구형모 등, 2005; 이주영, 임나영, 2016). 추가적으로 ECR은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 측정을 위한 ROC 곡선 분석에서도 경증 치매 식별에 높은 진단력을 보였다. ROC 곡선은 진단 도구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분석 방법으로, 주로 의료 및 심리 평가 분야에서 사용된다(고혜정 등, 2004; Hajian-Tilaki, 2013).

ECR의 구성은 16개의 그림이 각각 4개씩 4장의 카드에 배열된 형태로써, 각 그림에는 범주 단서가 제공된다. 검사 절차는 먼저 범주 단서와 단어를 연합하는 간접 과제를 시행한 후, 무조건 회상과 조건 회상(조건 회상)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두 회상 단계에서 기억해낸 단어 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점 16점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기억력의 저하를 의미한다. 총점은 0점에서 16점까지이며, 높은 점수는 우수한 기억력을, 낮은 점수는 기억 감퇴 또는 손실을 나타낸다.

3) 기억전략 사용 척도(Mnemonics Usage Scale, MUS)

본 연구에서는 기억문제 호소 양상 평가 척도인 MFQ(Memory Functioning Questionnaire)의 7개의 하위 척도 중, 기억전략 사용 척도인 MUS를 사용하였다. 원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7점 척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노인들에게 적용하기 쉽도록 7점 척도로 구성(Zelinski, & Gilewski, 1988)된 원본을 5점으로 수정하여 변안(송민지, 강연욱, 2011)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7개의 하위 척도는 각각 개별 척도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기억력에 대해 세부적인 검사 및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증치매노인의 종합적인 인지기능 효과 분석을 위해 MUS 사전 검사의 문항별 척도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 사후 검사에서 문항별 척도 검사의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척도 문항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뇌인다', '다른 것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항상(1)', '종종(2)', '때때로(3)', '가끔(4)', '안 한다(5)'의 5점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기억 전략 사용 빈도가 높아 긍정적인 점수로 해석된다.

3.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는 어린 시절, 가족, 가정생활, 학창시절, 일과 직장생활 등을 생애 주기에 따라 회상하면서 인출된 자서전적 기억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인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Duru, & Kapucu, 2016; Kirk et al., 2019; Lalanne, Gallarda, & Piolino, 2015)를 근거로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기별 주제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준 선행연구 중, 인지 증진 효과가 입증된 22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시행된 미술활동으로는 회화, 콜라주, 수공예, 조형 등 총 385가지 활동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지 기능 재활에 효과적인 회화 및 콜라주 기법(배향미, 2020)을 중심으로 미술 활동을 설계하였다. 또한, 인지 기능 검사 도구인 K-MMSE~2의 하위 척도를 참고하여 기억력, 지남력, 주의 집중, 언어 능력, 시공간 구성 능력 등 5개 영역(강연욱, 2006)과 인지 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김동연, 윤영옥, 2000) 등 총 6개 주요 인지 영역에 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노인들의 집중시간을 고려한다면 최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임을 제시(김연희, 2018)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70분으로 설계하였다.

1)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 과정

매 회기 도입부에 시간, 장소 지남력, 집중력을 위한 숫자 더하기, 빼기, 단어 기억 활동을 규칙적으로 동일하게 반복 활동할 수 있도록 도입부를 20분으로 설정하여 회기 시간은 총 70분으로 설계하였으며, 프로그램 회기 내 진행과정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프로그램 프로그램 회기 내 진행과정

구분	과정	소요시간	구성내용
도입	이야기 나눔 및 회기 내용 설명	20분	- 지남력, 기억력 학습 활동 - 연구대상 간의 이야기 나누기 - 회기 주제 설명하기
	미술 활동	30분	- 회기 주제와 연계된 미술 활동 전개하기
전개	작품 나눔	15분	- 작품과 회기 내용 이야기 나누기 - 연구대상 간 상호작용 및 의견 나누기
	마무리	5분	- 회기 내용 상기시키기

2) 프로그램 구성

사진 검사를 마친 후, 1회기는 자기소개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대상들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그리는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치료자와의 관계 형성 및 연구대상 간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2회기부터 7회기까지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대상 각자의 생애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자서전적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7회기에서는 그동안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나의 인생그래프를 만들게 되고, 8회기에서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인생을 정리하고, 현재를 인식하면서 과거와 재통합하는 과정과 함께 자신의 인생그림책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완성한 인생그림책은 연구대상이 직접 만든 미술작품과 함께 시대별로 정리된 기억들로 구성된 결과물이므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고, 공감 받으면서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이 고령의 경증 치매노인임을 감안하여, 미술 활동의 난이도를 낮추고 연구대상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였다. 이는 연구대상들이 주제와 관련된 자서전적 기억을 탐색하면서 미술 활동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이 단순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기억을 쉽게 인출하고 타인의 이야기나 작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 계	회 기	주 제	활 동 내 용	목 표	준 비 물
초 기	1 회 기	자기소개 (나를 소개해요)	프로그램 목적과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자화상을 그린 후,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 갖는다.	기억인출, 인지기능, 자기표현, 친밀감 형성	얼굴도안, 투명 OHP, 이름도안, 색칠도구
	2 회 기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원가족)	원가족 구성원을 상징하는 동물로 가족을 표현하고, 어린시절 기억, 내가 살던 동네, 가족과의 기억인출	기억인출, 인지기능, 자기개방, 감정표현	동물도안, 색칠도구, 가위, 풀
중 기	3 회 기	나의 학창시절 (내 꿈을 펼쳐라)	하늘을 나는 기구를 표현 하고, 꿈이 있었던 학창 시 절의 '나의 꿈'에 대한 기억 인출	기억인출, 인지기능, 내면의 욕구와 갈등탐색, 삶의 의욕 고취	열기구도안, 색종이, 색도화지, 색칠도구, 가위, 풀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임나영)

단 계	회 기	주 제	활 동 내 용	목 표	준 비 물
중 기	3 회 기	나의 학창시절 (내 꿈을 펼쳐라)	하늘을 나는 기구를 표현 하고, 꿈이 있었던 학창 시 절의 ‘나의 꿈’에 대한 기억 인출	기억인출, 인지기능, 내면의 욕구와 갈등탐색, 삶의 의욕 고취	열기구도안, 색종이, 색도화지, 색칠도구, 가위, 풀
	4 회 기	나의 성년 시절 (뜨거웠던 내 심장의 기억) (20~30대)	화려한 젊은 시절의 내 뜨거웠던 심장을 표현하고, 내 심장을 띄게 했던 기억인출	기억인출, 인지기능, 감정표출, 자기인식, 자기 효능감	아크릴물감, 스폰지, 도화지, 색칠도구
	5 회 기	나의 중년 시절 (나에게 주는 꽃다발) (40-60 대)	나를 위한 꽃다발을 만들고, 나에게 칭찬 메시지를 쓰는 활동과 함께 나 보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타인을 위해 살았던 시절의 기억 인출	기억인출, 인지기능, 자기인식, 정서안정	꽃 도안, 색지, 색칠도구, 가위, 풀, 스티커 등
	6 회 기	노년 시절 (나의 인생 나무) (60대이후)	인생에 대한 의미를 인생나무로 표현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 중 어려웠던 기억 인출	기억인출, 인지기능, 자기표현, 자기인식, 자기승화	나무 도안, 꽃잎, 나뭇잎, 이미지, 색칠도구, 가위, 풀
후 기	7 회 기	올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 그래프) (전 생애)	지금까지 살아온 굴곡진 삶을 10살 단위로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해당되는 시점의 기억 인출	기억인출, 인지기능, 자신의 생애에 의미부여, 기억 재통합	글씨도안, 인생그래프, 색칠도구
	8 회 기	나의 인생그림책 공유	완성된 나의 인생그림책을 읽어보고, 읽어주고, 경청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나를 칭찬해주며, 자축	기억인출, 인지기능, 작품을 통한 생 애 전체 회고	작품들 기억 내용, 출력지, 색칠도구, 풀, 가위

매 회기마다 해당 주제에 맞춰 연구대상들이 기억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재
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류한조(2019)의 생
애기억 아카이브를 활용한 노인 자서전 쓰기 연구에서 제시된 생애 단계별 발달
과업에 따른 질문지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수정·재구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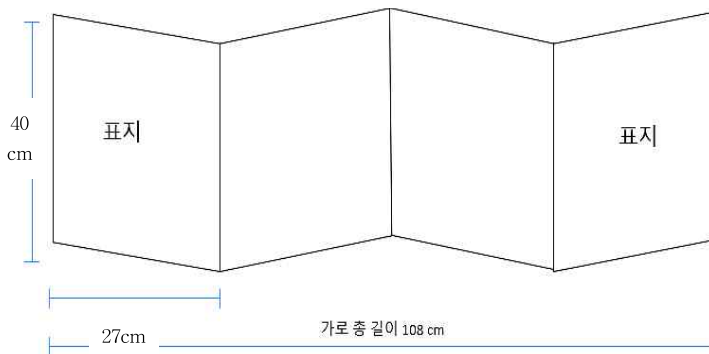
또한, 생애 기억 수집 회기별 주요 질문과 이를 바탕으로 9명의 실험집단 연
구대상들이 완성한 미술작품들 중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제에 맞게
선별하여 <표 4>에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4> 생애 기억수집 회기별 주요 질문지

회기	구분	내용
1	자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을 좋아하나요? - 혹시 신체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종교/가족/고향 - 결혼상태 질문 1)이혼 2)별거 3)사별 4)현재 함께 살고 있음
2	아동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와 비교해서 부모님의 차별이 있었나요? - 심하게 아프거나 사고의 기억이 있나요? - 입학식과 졸업식, 졸업여행 등 학창시절에 관련된 기억이 있나요? -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나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가장 좋아하던 놀이, 장난감은 무엇이었나요? - 좋아하던 음식,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3	청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나요? - 가정형편은 어떠하였나요? 그로 인해 사건은 있나요? - 위험한 장난, 부끄러운 장난을 쳐 본 적이 있나요? - 첫사랑의 기억은 있나요? - 소풍이나 나들이, 생일 등 특별한 날의 기억이 있나요? - 좋아했던 영화, 배우, 가수가 있었나요?
4	성인 준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나요? - 가정형편은 어땠나요? - 공부, 음악, 운동 등 열정적으로 몰입한 일은 있었나요? - 첫사랑의 기억은 있나요? - 생일 등 특별한 날의 기억이 있나요? - 열광했던 영화, 배우, 가수가 있었나요?
5	중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하면서(살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 배우자와 첫 만남과 결혼결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나요? - 시댁 혹은 처가와와 문제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나요? - 이사와 관련된 기억이 있나요? - 육아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이 있나요? -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억지로 한 일이 있나요?
6	노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준 사람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나요? -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나요?
7	전생애 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 살면서 가장 싫었던 기억이 있나요? - 살면서 가장 싫은 사람이 있었나요? -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나요? - 내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 내가 내렸던 가장 어려운 결정과 중요한 결정이 있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많이 의지했거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나요? -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철칙이 있었나요?)

2) 인생그림책 형식

인생그림책은 병풍 형식으로 접고 펼 수 있어서, 여러 폭의 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고, 보관하기에 편리한 형식으로, 앞면과 뒷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원하는 폭만 펼쳐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용하다(김희정, 김성진, 이상현, 2022; 박동철, 2008). 인생그림책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생그림책 형식

4. 자료처리(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 미술치료가 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9명으로 구성된 연구 대상은 표본 크기가 작아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워 비모수 검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전검사(K-MMSE~2, ECR, Mnemonics Usage Scale) 점수를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활용하였다. 셋째, 치료 과정에서의 치매 노인의 반응과 행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회기를 초기(1~2회기), 중기(3~5회기), 후기(6~8회기)로 나누고, 각 회기에서 제작된 미술 작품과 최종 완성된 인생그림책을 근거로 자서전적 기억의 인출과 활용, 집단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변화, 신체 및 행동적 반응, 기억 전략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구성의 동질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성별 분석 결과, $\chi^2=0.00$, $p=1.00$ 나타났다. 두번째, 집단과 연령대를 분석 결과, $\chi^2=2.42$, $p=0.66$, 집단과 학력을 분석 결과, $\chi^2=5.40$, $p=0.25$ 로 3가지 변수에 대한 집단 구성 모두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대립가설이 기각,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집단과 성별’, ‘집단과 연령’, ‘집단과 학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어, 두 집단은 사전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증치매 노인과 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집단과 성별 교차분석 결과

구분	집단 * 성별 교차표 (%)		전체	$\chi^2(p)$
	남	여		
실험집단	1 (11.1%)	8 (88.9%)	9 (100.0%)	0.00(1.00)
통제집단	1 (11.1%)	8 (88.9%)	9 (100.0%)	

<표 5>와 같이 경증치매 노인의 성별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남자 1명(11.11%), 여자 8명(88.89%)씩 같은 비율로 구성되었다. 경증치매 노인과 연령 교차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집단과 연령 교차분석 결과

구분	집단 * 연령 교차표 (%)					전체	$\chi^2(p)$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실험집단	0 (0.0%)	0 (0.0%)	6 (66.7%)	2 (22.2%)	1 (11.1%)	9 (100.0%)	2.42(0.66)
통제집단	1 (11.1%)	1(11.1%)	5 (55.60%)	1 (11.1%)	1 (11.1%)	9 (100.0%)	

<표 6>과 같이 연령대는 실험집단 80대 6명(66.7%), 90대 2명(22.2%), 100대 1명(11.1%)이고, 통제집단 60대 1명(11.1%), 70대 1명(11.1%), 80대 5명(55.6%), 90대 1명(11.1%), 100대 1명(11.1%)으로 구성되었다. 경증치매 노인 집단과 학력 교차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임나영)

<표 7> 집단과 학력 교차분석 결과

구분	집단 * 학력 교차표 (%)					전체	$\chi^2 (p)$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실험집단	2 (22.2%)	1 (11.1%)	2 (22.2%)	3 (33.3%)	2 (33.3%)	9 (100.0%)	5.40 (0.25)
통제집단	3 (33.3%)	3 (33.3%)	0 (0.0%)	3 (33.3%)	0 (0.0%)	9 (100.0%)	

<표 7>과 같이 학력은 실험집단 무학 2명(22.2%), 초졸 1명(11.1%), 중졸 2명(22.2%), 고졸 3명(33.3%), 대졸 이상 2명(22.2%)이고, 통제집단은 무학 3명(33.3%), 초졸 3명(33.3%), 고졸 3명(33.3%)으로 구성되었다.

2. 기억 및 인지기능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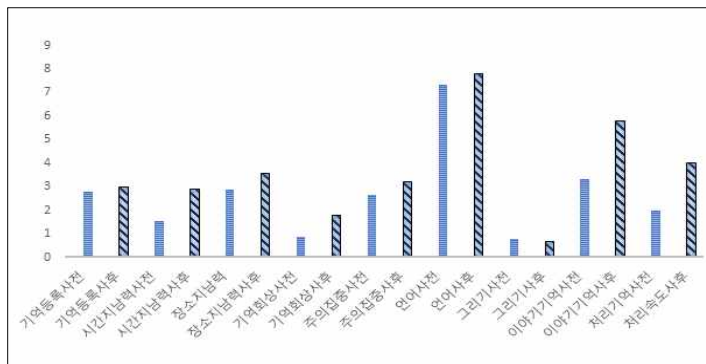
첫째,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 미술치료가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2 확장형)를 활용하여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아래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 K-MMSE~2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확장형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집단(N)	음의순위 (순위합계)	사례수	양의순위 (순위합계)	사례수	동률 사례수	Z
기억등록	실험(9)	0.00(0.00)	0a	1.50(3.00)	2b	7c	-1.41
	통제(9)	1.00(1.00)	1a	0.00(0.00)	0b	8c	-1.00
기억회상	실험(9)	2.50(2.50)	1a	4.25(25.50)	6b	2c	-1.99*
	통제(9)	4.00(20.00)	5a	0.00(0.00)	0b	4c	-0.26
시간지남력	실험(9)	0.00(0.00)	0a	5.00(45.00)	9b	0c	-2.76*
	통제(9)	4.00(4.00)	1a	2.00(6.00)	3b	5c	-0.38
장소지남력	실험(9)	1.50(1.50)	1a	5.00(45.00)	3b	5c	-1.30
	통제(9)	2.50(5.00)	2a	2.50(5.00)	2b	5c	0.00
주의집중	실험(9)	2.00(2.00)	1a	2.67(8.00)	3b	5c	-1.13
	통제(9)	4.00(20.00)	5a	4.00(8.00)	1b	3c	-2.00*
언어	실험(9)	0.00(0.00)	0a	2.50(10.00)	4b	5c	-2.00*
	통제(9)	0.00(0.00)	4a	3.00(15.00)	5b	0c	-1.73
그리기	실험(9)	1.00(1.00)	1a	0.00(0.00)	0b	8c	-1.00
	통제(9)	0.00(0.00)	0a	1.00(1.00)	1b	8c	-1.00
이야기 기억	실험(9)	0.00(0.00)	0a	5.00(45.00)	9b	0c	-2.67*
	통제(9)	2.50(5.00)	2a	2.50(5.00)	2b	5c	-0.00
처리속도	실험(9)	0.00(0.00)	0a	3.50(21.00)	6b	7c	-2.21*
	통제(9)	1.50(3.00)	2a	3.50(7.00)	2b	5c	-0.73
K-MMSE	실험(9)	0.00(0.00)	0a	5.50(55.00)	2b	7c	-2.67*
총점	통제(9)	5.0(3.00)	2a	5.00(15.00)	3b	4c	-0.95

* $p < .05$, ** $p < .01$, 주. a. 사후<사전, b. 사후>사전, c. 사후=사전

위 표와 같이 실험집단의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2 확장형) 총점은 $z=-2.716$,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하위 9개 영역 중 시간 지남력, 기억 회상, 언어, 이야기 기억, 처리 속도의 5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억 등록, 장소 지남력, 주의 집중 항목은 상승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그리기 영역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2 확장형)에 추가된 2가지 영역인 이야기 기억과 처리속도는 교육수준과 연령을 고려한 표준 점수인 T점수를 사용하여 온라인 검사 방식으로 채점되었다. 이는 연구에 사용된 표본들의 교육수준과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점수 보다는 표준집단에 맞춰서 조정된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는 데 신뢰할 만하다고 사료되었다. 한편, 통제집단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변화가 없었고, 유의한 차이는 주의 집중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각 집단의 K-MMSE~2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확장형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그림 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림 2> K-MMSE~2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확장형 사전-사후 검사 결과

둘째, ECR(Enhanced Cued Recall) 기억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험집단의 ECR 기억 검사 사전-사후 검사 점수 변화에 대한 결과를 <표 6 3>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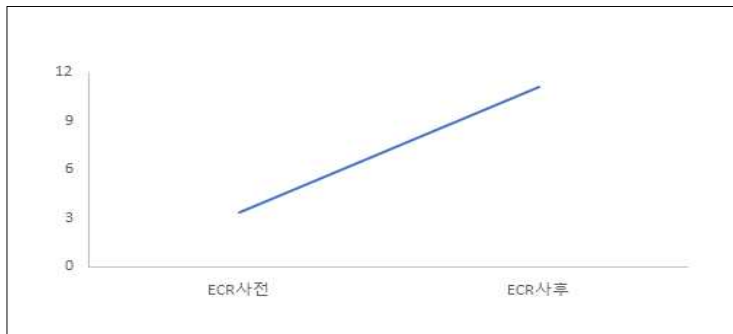
<표 9> ECR 기억력 검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집단 (N)	음의순위 (순위합계)	사례수	양의순위 (순위합계)	사례 수	동률 사례수	Z
기억력	실험(9)	0.00(0.00)	0a	5.00(46.00)	9b	0c	-2.68*
	통제(9)	1.00(1.50)	1a	2.83(8.50)	3b	5c	-1.30

* $p<.05$, 주. a. 사후<사전, b. 사후>사전, c. 사후=사전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임나영)

이 검사는 16가지 그림을 4가지씩 배열한 총 4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그림에 대한 범주 단서를 통해 기억 회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통해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실험집단의 사후 점수는 $z=-2.68$,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점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실험집단의 ECR 기억 검사 사전-사후 검사 점수 변화에 대해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 ECR 기억력 검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

셋째, MFQ(Memory Functioning Questionnaire)의 하위 변인인 기억 전략 척도(Mnemonics Usage Scale)를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이 기억 전략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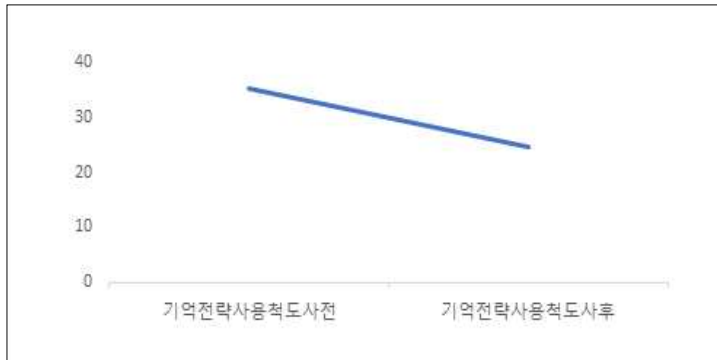
<표 10> 기억전략척도 사용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집단	음의순위 (순위합계)	사례수	양의순위 (순위합계)	사례수	동률 사례수	Z
기억전략사용	실험	5.00(35.00)	7a	1.00(1.00)	1b	1c	-2.38*
	통제	2.83(8.50)	5a	1.50(1.50)	1b	3c	-1.29

주. * $p<.05$, 주. a. 사후<사전, b. 사후>사전, c. 사후=사전

원 척도(Zelinski, & Gilewski, 1988)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5점 척도로 수정·번안된 문항(송민지, 강연옥, 2011) 중 기억 전략 사용 관련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전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사전-사후 변화 분석을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해당 척도는 점수가 높을

수록 기억전략 사용이 적고, 점수가 낮을수록 기억전략 사용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실험집단의 기억 전략 사용 총점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 변화를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 기억전략척도 사용 사전-사후 검사 결과

3. 단계별 반응 및 행동 특성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프로그램 8회기 중 초기단계(1~2회기), 중기단계(3~5회기), 후기단계(6~8회기) 단계별 연구대상의 반응과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1) 초기단계(1-2회기)

1회기 ‘자기소개(나를 소개해요)’ 활동에서, 만 101세의 초고령 집단원 A3는 안경을 쓴 자신의 모습을 그린 뒤, 중학생 시절의 자신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공부를 매우 잘했으며 운동 실력도 뛰어났다고 회상하였다. 연구대상 A5는 목소리가 작고 기력이 약해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의욕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질문에 대해서는 몇 초 동안 생각한 후에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2회기 ‘나의 어린 시절(나의 원가족)’ 활동에서, 연구대상 A8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원가족의 구성원을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소’ 라고 표현하며 소 그림을 중심으로 나머지 가족을 배치하였다. 이어서 양 두 마리를 붙인 뒤, 한 마리는 어머니, 다른 한 마리는 자신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신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을 나란히 붙여 놓은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똑같이 양을 붙였네. 참, 신기하네.” 라고 말하였다. 연구대상 A9은 미술 활동 중 눈을 자주 감박이며 주변을 살피는 등 불안한 모습을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임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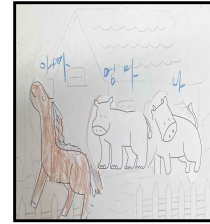
보였다. 원가족을 상징하는 동물을 찾아보라고 제시하자, “이걸 왜 해! 나는 아들이 있는 지금 가족이 좋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른 연구대상들이 동물을 선택하고 종이에 붙이며 꾸미는 모습을 지켜본 후, 뒤늦게 활동을 시작하였다. A9은 아버지를 ‘말’로, 어머니와 자신을 각각 ‘소’로 상징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잘 차려입고 외출하였던 반면, 어머니와 자신은 항상 집에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림 5> 1회기: 자화상



<그림 6> 2회기: 나의 원가족



2) 중기단계(3-5회기)

3회기 ‘나의 학창시절(내 꿈을 펼쳐라)’ 활동에서 연구대상 A2는 기구에 탄 어린 자신이 ‘하늘로 등실 등실 여행을 가는 상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라고 표현하였다. 어린 시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재능이 있어서 가수가 되고 싶었으나, 당시에는 가수라는 직업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꿈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였다. 공부를 잘하여 약재사에 합격한 뒤 동생들의 학업을 책임졌던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수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연구대상 A4는 기구의 배경이 될 색지의 색깔을 고르는데 다소 오래 고민하였고, 노란색을 선택한 후, 매우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좋아했다. 색종이의 색이 검지치 않도록 선택하여 반듯하게 붙이려고 노력하였다. 중학생 시절, 공부를 매우 잘했고, 노래와 연기를 잘해서, 군부대공연에 뽑혀 노래와 춤을 추는 공연을 다녔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한 반대로 인해 공연 중단을 강요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였으며, 이후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학업도 이어가지 못했다고 회상하였다. 그때를 떠올리며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며, 다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4회기 ‘나의 성년시절(뜨거웠던 내 심장의 기억)’ 활동에서, 스펀지에 물감을 묻혀 찍는 작업에서 연구대상 A3는 매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연구대상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즐겁게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A3는 집단 내 유일한 남성 참여자이자, 101세로 최고령자였다. 그는 유복한 집안의 장남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일을 시작하고 결혼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차분히 회상하며 하트 맵을 완성하였다. A3는 상대적으로 6·25 전쟁 전후 세대로서, 경제

적 어려움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여성 연구대상들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신 역시 미국 유학을 꿈꾸었으나 경제적 이유로 이를 이루지 못했던 경험을 회상하고, 이후 자녀들을 모두 유학 보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여성 연구대상들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회기였다. 파킨슨과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 A6는 하트맵 작업 시 몰입감이 매우 컸다. 도화지 전체에 여백 없이 계속 겹쳐 찍었고, 당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공부를 더 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독려로 공부 대신 중매로 만난 착한 남편과 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5회기 ‘나의 중년 시절(나에게 주는 꽃다발)’ 활동에서 연구대상 A1은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등 세 가지 색을 사용하여 꽃다발을 완성하였다. 또한, 매 회기 자신의 이름을 한문으로 작성하였으며, 꽃다발에는 “OOO, 지금까지 고생했다.” 라는 의미를 문법적으로 부정확하게 메시지를 적어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연구대상 A5는 매 회기마다 기운이 없고 필압이 매우 약했으나, 꽃다발 미술 활동 시에는 필압이 개선되어 다양한 색으로 꽃송이들을 꼼꼼히 색칠하여 완성할 수 있었다. 리본 또한 도움 없이 혼자 예쁘게 묶어 마무리하였으며, 꽃다발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림 7> 3회기: 내 꿈을 펼쳐라 <그림 8> 4회기: 뜨거웠던 내 심장 <그림 9> 5회기: 나에게 주는 꽃다발

3) 후기단계(6-8회기)

6회기 ‘노년 시절(나의 인생 나무)’ 활동에서 92세인 연구대상 A7은 나뭇잎을 한 개씩 풀을 붙이고, 잘 붙었는지 확인하면서 붙였다. 나뭇잎은 겹쳐도 된다고 설명했으나 거의 대부분 겹치지 않게 표현하여 완성하였다. 연구대상 A2는 시력이 좋지 않아 채색 활동 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인생나무 작업에서는 채색한 나무 몸통과 가지가 다양한 색깔의 꽃잎과 잎사귀로 덮여 화려한 나무로 재탄생되면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또한, 평소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 결석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미술 시간이 너무 좋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7회기 ‘올마이 라이프(나의 인생 그래프)’ 활동에서 기운이 없고, 말수가 적어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임나영)

공유하는 기억의 양이 많지 않았던 연구대상 A5는 인생그래프 작업을 거부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30대에 남편과 사별한 후 아이들을 혼자 양육했던 힘든 기억을 공유하였으며, ‘인생’ 글씨 작업에 몰입했다. 이때 다른 연구대상들이 위로해주자, A5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복받치는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대상 A1은 전체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그래프를 만들어보는 회기에서 10대부터 90대까지 최선을 다해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이해할 수 있었음. 40대부터 50대까지 크게 식당을 하고, 60대에 당구장, 70대에 비디오가게를 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지금 집에 모든 게 다 갖춰져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했음. 이번 회기에는 반복했던 문장 표현 없이, 생애시기에 맞춰 기억 인출량이 많았다.

8회기는 마지막 회기로 ‘완성된 나의 인생그림책’ 활동에서 연구대상 A2는 시력이 좋지 않아 연구자가 본인의 인생그림책을 읽어주자, “내 이야기를 선생님이 읽어주니까 눈물이 나네요. 모두 내 이야기가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했던 모든 그림들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니 좋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만족해했다. 연구대상 A5는 완성된 자신의 인생그림책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연구자를 조용히 응시한 뒤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물끄러미 자신의 책을 바라보았다. 연구대상 A8은 1~2회기의 초기 단계 동안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두통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중기 시작 이후, 연구자가 그동안 기억한 내용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재확인시켜주자, “아, 그때가 맞아요. 기억이 나요.”라고 반응한 뒤, “그래도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라고 반복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출되는 기억의 양이 점차 증가하였고, 후기단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기억이 나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에는 피난 시절 거주했던 지역명과 주변 환경은 물론, 당시 느꼈던 감정까지 세심하게 인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는 어머니가 광목천을 염색하여 손바느질로 만들어준 검정색 교복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렸다. 햇빛에 비쳤을 때 자신의 교복 빛깔이, 공장에서 제작된 고유의 짙은 검정색이 아니라 집에서 염색했기 때문에 약간 회색빛을 띠었다는 점을 상세히 기억하였다. 이후, 자신을 예뻐해 주었던 선생님의 성함을 기억해내며,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략적인 선생님의 연세를 떠올리면서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A8은 전직 간호사로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과 남편과의 연애 시절,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연구대상 9명 중 가장 많은 양의 기억을 인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MMSE~2 검사 점수가 15점 이상 23점 이하인 경증치매 진단 노인 18명을 대상으로,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 미술치료가 기억 및 인지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는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 기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2 확장형), 기억력 검사(ECR), 기억전략사용 척도(MUS)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하였다.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2 확장형)의 하위 영역 점수를 사전-사후 비교한 결과, 총 9개 하위 영역 중 시간지남력, 기억회상, 언어, 이야기 기억, 처리 속도 영역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들은 시간 및 단어 반복 학습, 손을 활용한 미술 활동,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인지 기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이야기 기억 과제의 경우, 사후 검사에서 연구대상들이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반면, 주의집중력 등 네 개 항목에서는 점수 변화가 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그리기 및 처리 속도 과제에서 시력 저하, 필압 부족, 손떨림 등 신체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기억력 검사(ECR)에서 사전-사후를 비교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억력 검사(ECR)의 과제는 단순히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시를 듣고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의 인지 수준에 따라 반응 속도와 정확성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전략사용 척도(MUS)는 평상시 기억하기 위한 습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예를 들어, 메모하거나 연상하여 기억하고, 중요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두는 등의 습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기억 전략 사용이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둘째,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노인들의 단계별 반응 및 행동 특성 양상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였으나, 회기를 거치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총 회기 시간 70분 중 도입 과정을 비교적 길게 시간을 할애하여 2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억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학습 활동을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설계함으로써 참여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지난 회기 활동을 기억해 보는 활동을 시작으로 ‘년, 월, 일, 요일, 계절’ 등의 지남력 향상을 위한 활동과 정해진 단어들을 반복 학습하는 등, 매 회기 시작 단계에서 규칙적으로 진행하면서 참여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입 활동은 ‘기억력’과 ‘지남력’, ‘주의 집중력’ 등 주요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복과 회상을 통해 인지적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개 과정에서는 연구대상이 자신의 인생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미술 활동을 통해 특정 시점의 자서전적 기억을 인출하고, 그 내용을 집단 내에서 공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는 스피지로 물감 찍기, 가위질, 종이 찢기, 색칠하기, 종이접기, 선 긋기 등 비교적 간단한 손작업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구성 덕분에 치매 노인들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주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대상은 과제 수행을 통해 점진적인 기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시대적으로 유사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점차 언어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언어 능력’과 연구대상 간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미술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시공간 구성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기억 인출에도 도움을 주었다. 특히 사전검사에서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느리거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복 설명이 필요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연구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지시에 따르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되묻는 등 신중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응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인생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기억력, 지남력, 주의 집중, 언어 능력, 시공간 구성력, 문제 해결 능력의 6가지 주요 인지 기능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기억 인출에도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완성된 인생그림책은 치매 노인이 과거를 회상하고,

타인과 정체성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경증치매 노인들이 생활하는 기관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연구대상 간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서적 연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대상들 간의 친밀도가 형성되고, 서로 간에 공감하고 공감 받는 환경 속에서, 연구대상들이 살아온 생애 기억이 미술 작품과 함께 인생그림책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 2회 70분씩, 도입부에 반복 회상과 지남력 활동을 포함한 구성으로 총 8회기로 설계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앞서 실시된 예비 프로그램은 중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회기당 90분, 주 1회로 구성되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들은 1주일 간격이 비교적 길게 느껴져, 이전 회기 활동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회기 당 90분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연구대상들에게는 장시간 집중이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연구자와의 지속적인 친밀감 형성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프로그램 빈도를 주 2회, 총 8회로 조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만, 추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추후 검사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1회보다 주 2회의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 3회 이상으로 빈도를 높일 경우에도 효과가 증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 집단은 1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였고, 연령대 역시 70세에서 100세까지 차이가 있었다. 남성 연구대상은 초기에 자신으로 인해 여성 연구대상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실제로 프로그램 초기에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 연구대상들이 따뜻하고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자 안도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집단에 적응했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한 집단 구성 및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의 성격, 정서적 특성, 그리고 생애 경험은 미술치료의 효과에 영향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임나영)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정서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참여 인원과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변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감이나 성격 특성 등 심리적 변인을 고려한 집단 구성을 바탕으로, 인지 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 치매 노인의 기억과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이는 초고령 사회에서 비약물적 치료 접근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미술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와 지속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치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연욱, 나덕렬, 한승혜 (1997).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K-MMSE 의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15(2), 300-308.
- 강연욱 (2006).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노인 기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12.
- 강연욱, 장승민, 김상윤 (2020). K-MMSE~2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2판. 서울: ㈜인싸이트.
- 강진원, 구민모, 박건우 (2021).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 기반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15(2), 1-19.
- 고혜정, 김도관, 김상윤, 구형모, 권의정, 이형석, 김지혜 (2004). Enhanced Cued Recall Task 의 유용성: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와 노인 우울증 환자의 변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155-168.
- 구형모, 김상윤, 김지혜, 고선규, 고혜정, 이형석, 김도관 (2005). 7 분 선별검사 (7Minute Screen Test) 각 하위 척도의 임상적 유용성. 신경정신의학, 44(2), 253-258.
- 김동연, 윤영옥 (2000). 미술치료가 노인성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제반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7(2), 115-140.
- 김미성, 이은주 (2023). 사진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회상기능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30(1), 207-226.
- 김연희 (2018). 치매노인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인지기능 증진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영숙 (2005). 회상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일규, 정승일 (2020). 중·장년기 그룹 자서전쓰기 참여자의 경험학습에 관한 의미 연구. Andragogy Today, 23(2), 107-131.
- 김찬영 (2022). 집단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무력감에 미치는 효과: 단일사례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7(2), 407-413.
- 김희정, 김성진, 이상현 (2022). 19~20 세기 왕실과 민간의 병풍 상황 비교 연구: 모란도 병풍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29, 77-114.
- 도지연, 최명선 (2022).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우울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8(3), 135-155.

인생그림책 만들기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김도연·임나영)

- 류한조 (2019).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이용한 노인의 자서전: 쓰기 콘텐츠 기획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문준희, 김영숙 (2020). 치매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수용전념치료 효과성 연구: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245-270.
- 박동철 (2008). 병풍(屏風)으로 본 민속예술의 생산과 소비. *실천민속학연구*, 11, 325-364.
- 박민선, 조비룡, 김상윤, 양동원 (2002). 한국판 7 분 치매 선별 검사의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3(2), 5-739.
- 박상미, 이창대, 김정란, 김태희, 박지혁 (2023). 노인의 회복탄력성 관련 인자로서의 자서전적 기억 기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31(2), 81-95.
- 배향미 (2020).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내용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보건복지부 (2025).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www.mohw.go.kr
- 송민지, 강연욱 (2011). 주관적 기억장애의 기억문제 호소 양상과 인지기능 및 정서 특성. *대한치매학회지*, 10(4), 125-136.
- 양영순, 양현덕, 홍윤정, 김정은, 박문호, 나혜리, 한일우, 김상윤 (2012). 일상생활 능력과 치매. *대한치매학회지*, 11(2), 29-37.
- 이경민 (2000). 기억기능장애의 양상.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 2(2), 172-178.
- 이정석, 손강주, 박재섭, 박선영 (2023).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치매 노인들의 정신행동증상 변화. *국민건강보험 보고서*, NHIMC-2022-PR-002.
- 이주영, 임나영 (2016). 세시풍속을 활용한 회상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 노인의 기억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3(3), 895-916.
- 전미숙 (2016).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6(1), 505-523.
- 정여주 (2005). 노인미술치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년학*, 25(1), 73-86.
- 정재훈 (2022). 회상훈련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비즈니스융복합연구*, 7(3), 17-22.
- 진복수, 전미연 (2000). 집단회상요법이 치매노인의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0(1), 183-194.
- 진영선, 김영경 (2011). 기억 향상 요소를 강화한 노인 집단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노년학*, 31(2), 401-417.
- 홍희송, 박민자 (2024). 집단미술치료가 COVID-19 시기 노인의 우울감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임상미술심리연구*, 14(1), 107-130.
- Beike, D. R., Brandon, N. R., & Cole, H. E. (2016). Is sharing specific auto-

- biographical memories a distinct form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5(4), 434.
- Cammisuli, D. M., Cipriani, G., Giusti, E. M., & Castelnuovo, G. (2022). Effects of reminiscence therapy on cogni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people with Alzheimer's disease: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11(19), 5752.
- Aşiret, D., & Kapucu, S. (2016). The effect of reminiscence therapy on cognition,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patients with Alzheimer disease.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and Neurology*, 29(1), 31 - 37.
- El Haj, M., Antoine, P., Nandrino, J. L., & Kapogiannis, D. (2015). Autobiographical memory decline in Alzheimer's disease, a theoretical and clinical overview. *Ageing research reviews*, 23(Part B), 183-192.
- Folstein, M. F., Folstein, S. E., & McHugh, P. R. (1975). "Mini-mental state": 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2(3), 189-198.
- Gold, R., Kappos, L., Arnold, D. L., Bar-Or, A., Giovannoni, G., Selmaj, K., ... & Dawson, K. T. (2012). Placebo-controlled phase 3 study of oral BG-12 for relapsing multiple sclerosi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7(12), 1098-1107.
- Hajian-Tilaki, K. (2013).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 for medical diagnostic test evaluation. *Caspi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4(2), 627.
- Irazoki, E., Garcia-Casal, J. A., Sanchez-Meca, J., & Franco-Martin, M.(2017). Efficacy of group reminiscence therapy for people with dementi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Revista de Neurologia*, 65(10), 447-456
- Kirk, M., Rasmussen, K. W., Overgaard, S. B., & Berntsen, D.(2019). Five weeks of immersive reminiscence therapy improves autobiographical memory in Alzheimer's disease. *Memory*, 27(4), 441-454.
- Lalanne, J., T. Gallarda & P. Piolino (2015). The Castle of Remembrance: New insights from a Cognitive Training Programme for Autobiographical Memory in Alzheimer's Disease, *Neuropsychological Rehabilitation*, 25(2), 254-282.
- Leyhe, T., Erb, M., Milian, M., Eschweiler, G. W., Ethofer, T., Grodd, W., &

- SauR. (2009). Changes in cortical activation during retrieval of clock time representations in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early Alzheimer's disease.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27(2), 117-132
- Meeter, M., Eijsackers, E. V., & Mulder, J. L. (2006). Retrograde amnesia for autobiographical memories and public events in mild and moderate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28(6), 914-927.
- Solomon, P. R., Hirschhoff, A., Kelly, B., Relin, M., Brush, M., DeVeaux, R. D., & Pendlebury, W. W. (1998). A 7 minute neurocognitive screening battery highly sensitive to Alzheimer's disease. *Archives of neurology*, 55(3), 349-355.
- Wheeler, R. L., & Gabbert, F. (2017). Using self-generated cues to facilitate recall: A narrative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8, 291097.
- Zelinski, E. M., & Gilewski, M. J. (1988). Memory for prose and aging: A meta-analysis. In *Cognitive development in adulthood: Progress in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NY: Springer, 133-158.

원 고 접 수 일 : 2025. 02. 20.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3. 30.
게 재 확 정 일 : 2025. 04. 26.

Abstract

The Effects of Life Picture Book Group Art Therapy on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 in Older Adults with Mild Dementia*

Kim, Do-Yeon** · Lim, Na-Yo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Life Picture Book group art therapy on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 in older adults with mild dementia. Participants included 18 older adults diagnosed with dementia, recruited from A Nursing Home and B Daycare Center in Gyeonggi Province (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9 in the control group), based on consent and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2 (K-MMSE-2) scores ranging from 15 to 23.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eight sessions of the Life Picture Book program, conducted twice weekly over a four-week period. Pre- and post-tests were administered using 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2 Expanded Version (K-MMSE-2), the Enhanced Cued Recall (ECR) test, and the Mnemonics Usage Scale (MUS). Nonparametric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to compare chang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participants' respons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based on their artwork.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s showed increased memory retrieval and positive changes across cognitive domains. Furthermore, the completed Life Picture Book served as a tool for visually reaffirming autobiographical memor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ife Picture Book group art therapy is an effective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for improving memory and cognitive function in older adults with mild dementia and provides a valuable basis for dementia treatment and management.

Key words : Life Picture Book, Autobiography, Mild Dementia, Cognitive Function, Art Therapy

* This study is part of a Master's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pecial Therapy, Gachon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Special Therapy, Gachon University

*** Professor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y, Gachon University